



[기획탐방2] 위기의 농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위기 극복'

김유인 | 기사입력 : 2025/08/04 [15:48:00]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청사 전경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농지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뒤 동일 농지를 장기간 임대받아 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이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로 부담이 적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 장점은 환매권(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받기 때문에 농가가 경영을 정상화하면 언제든지 농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는 환매요율 산정 방식이 개선되어, 농민이 농지를 최초 매입할 때 고정금리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환매 시점에는 선택한 환매요율과 감정평가금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해졌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환매 대금 분할 납부 중인 농가에 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경영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자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 목 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보장

□ 사업대상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로 연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금융기관·공공기관에 대한 농가채무액이 4천만원 이상
 - 자산(소유 모든 부동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 사업신청 : 농업인 주소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 매입대상 및 매입가격
 -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
 - 매입가격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시설물은 임대기간 만료일 기준)
 - 매입농지 임대
 - 당해농가에 7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가능
 - 임대료 : (농지) 관행임대차료 수준, (시설물) 시설물 매입가격의 1% 이내
 - 매입농지 환매
 - 임대기간 중 환매권(우선매입권) 보장
 - 환매가격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환매연수× 정책요율*)중 낮은 금액(단, 농업용시설은 매입가격)
- * 농지매입 시 고정요율(연 3%) 또는 변동요율(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중 농업인이 선택한 정책요율

■ 잃어버릴 뻔한 농지, 지켜낸 희망

영암군 시종면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작은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는 최씨는 “자연재해와 축산 가격하락,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부채로 경매 위기에 처했으나, 경영회생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고, 기존 농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향후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안도감과 만족감을 표했다.

영암군 군서면에서 벼와 잔디농사를 짓는 김씨는 “자연재해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부채로 경매 위기에 처했으나, 경영회생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농사를 이어가며 성실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2년 만에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하다”고 전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지켜낸 소중한 농토

■ 위기에 처한 농가에 빛을,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실질적 성과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은 기후 변화, 시장 변동성, 인력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나 부채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농가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경매로 인한 농지 손실을 방지하며, 장기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농가 스스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는 농업 경영체가 겪는 어려움의 핵심을 짚어 해결해 주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채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섰던 농가들이 이 제도를 통해 희망을 되찾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사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숫자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사업이 시행된 이래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 4천 6백여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약 4.4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 농가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련한 정책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특히 영암군의 사례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영암군 내 100여 개 농가가 총 280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농가들의 안정은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의 활력으로 이어지기에, 이 사업의 지역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농업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소중한 농지를 지켜내는 동시에, 다시금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이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위기 농가에 닿아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농업이 우리 사회의 굳건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